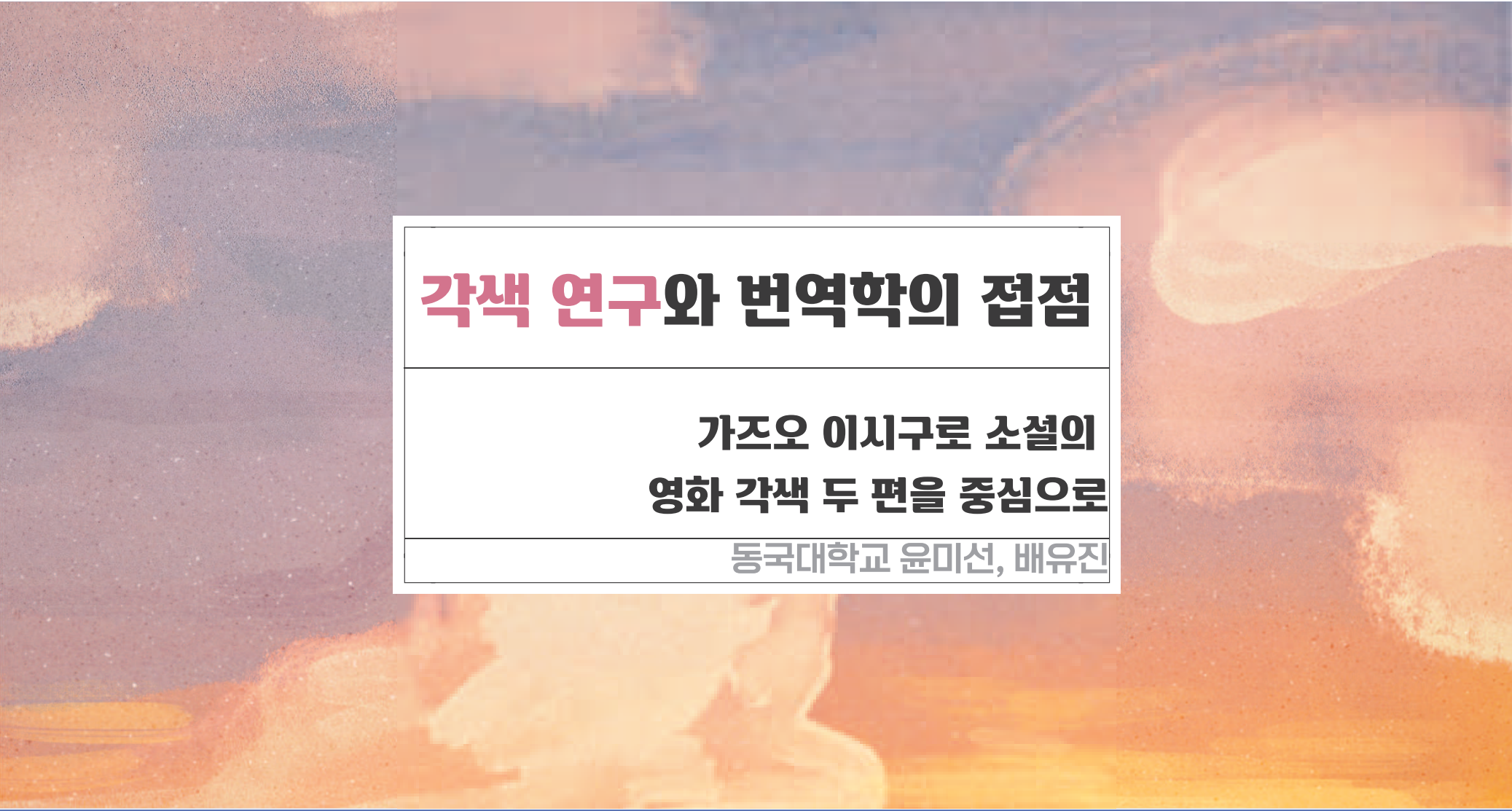




각색 연구와 번역학의 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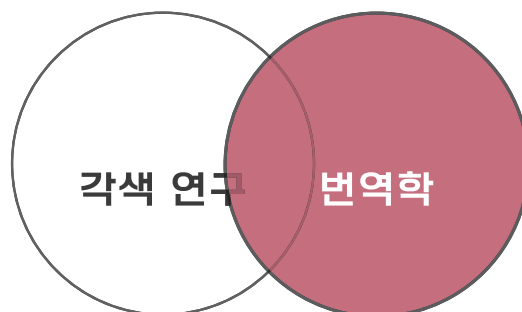
**가즈오 이시구로 소설의
영화 각색 두 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윤미선, 배유진

Content

01	02	03	04	05	06	07
연구 배경	작가 및 작품	서술적 특징	각색의 기술적 분석	분석 결과	해석	나가면서
각색 연구와 번역학의 접점	〈그날의 잔영〉 〈나를 보내지 마〉	믿을 수 없는 서술 영화적 각색	- 각색 변이 - 내러티브 기술 - 캐릭터 구축 - 해석	〈그날의 잔영〉 〈나를 보내지마〉		

연구 배경



각색 연구와 번역학의 접점 모색

- 각색 연구와 번역학의 접점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논의되어 옴 (Patrick Cattrysse, Lawrence Venuti, Roberto A. Valdeón, Phyllis Zatlin, etc.)
- 캐트리스에 따르면 각색 연구와 번역학은 "원본 텍스트의 변형을 '불변(invariance)'과 '등가(equivalence)'라는 전제 하에"(1992: 54) 연구한다는 특징을 공유함
- "The Art of Adaptation"에서 Seger는 'adaptation'과 'translation'을 동의어로 활용함
- Translation과 Adaptation 모두 추상적인 용어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 분야에서 용어 정립과 개념 분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짐

연구 배경

대학에서 번역과 각색을 가르치는 Zatlin은 학생들이 "'각색'이라는 용어보다 '번역'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며" (2005: 24), 번역은 원본 텍스트에 충실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반면 각색이라는 용어는 "몇몇의 변화만으로도 [원본 텍스트의] 메시지를 급격하게 바꾼다" (80)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하였다.

Zatlin의 저서에서 드러나듯 각색의 실무에서 번역과의 접점이 클 뿐만 아니라 각색 연구에서도 번역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각색 연구 학자인 Batron Palmer는 'The Socialological Turns of Adaptation Studies'라는 논문에서 "번역이라는 개념이 각색 연구를 독립적인 분야로 정립되기 어렵게" (2004: 263) 하는 요소라고 지적할 만큼 각색 연구에서 번역은 '문제적'이다.

실제로 각색 연구에서는 번역학의 몇몇 분석틀을 차용하고 있다. 이븐-조하르의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를 준용한 캐트리스의 'Descriptive Adaptation Studies'가 대표적이다.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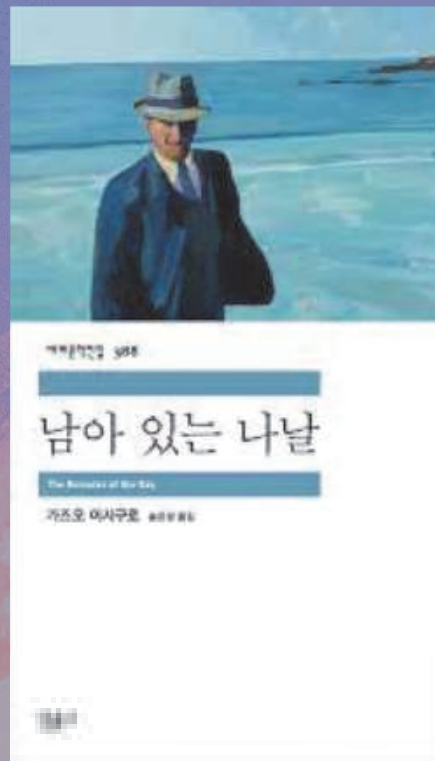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 〈남아있는 나날〉과 〈나를 보내지 마〉는 믿을 수 없는 서술(unreliable narrtion)이라는 서술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영화적으로 재현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소설의 믿을 수 없는 서술 기법이 영화 〈남아있는 나날〉과 〈나를 보내지 마〉에는 어떻게 구현되었을까? 각색 연구에서 준용하는 번역학 연구방법(분석틀) 중 '각색 변이(Adaptaion Shift)'을 활용하여 영화 각색에 재현된 소설의 믿을 수 없는 서술 기법을 비교해 본다. 또한 각색 연구와 번역학의 교집합이 번역 연구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 고찰한다.

〈남아있는 나날〉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

일본계 영국인 소설가. 201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1989년 부커상 수상자.

〈이시구로는 〈남아있는 나날〉로 부커상을 수상하였으며 1993에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에 의해 해당 소설이 영화로 각색되었다.



영화 〈남아있는 나날〉

소설 「그날의 잔영」은 영국 귀족의 저택에서 일하는 한 집사장이 옛 동료들 만나러 떠나는 여행에서부터 시작한다. 작중 현재 시점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6년이나 그 여정에서 1930년대 중후반에 관한 회상 내용들이 서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를 보내지 마



〈나를 보내지 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를 SF적인 설정을 통해 성찰하는 소설
등장인물들의 비밀이 나름대로 반전요소로, 군데군데에서 암시를 주면서 천천히 밝혀지는 형식
인간의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복제되어 온 존재, 클론들의 성과 사랑, 슬픈 운명을 통해 삶과 죽음,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성찰한 문제작
소설은 2005년에 발간되었으며 각색 영화는 2010년 작

소설의 믿을 수 없는 서술

믿을 수 없는 서술은 웨인 부스(Wayne C. Booth 1961)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내포 저자(implicit author)’와 ‘서술의 거리(narrative distance)’와 관련이 깊은 개념

믿을 수 없는 화자는 특이한 말버릇이나 서술의 비일관성 및 모순 등을 통해 서사적 사건에 대해 일탈적 해석과 판단을 노출(Wall 1994)

이에 독자는 화자가 서술하는 사건의 진상과 사건에 대한 화자의 해석 및 판단에 거리가 있음을 간파하게 되며 “누군가가 서술의 비일관성을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징후로 해석하게끔 설계했다는 가정”(Phelan 2005: 38)을 하게 됨

잘못된 보고와 축소 보고

펠란(James Phelan)은 부스의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보고, 해석, 평가”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행한다고 봄으로써 부스의 믿을 수 없는 서술 개념을 확장 및 재정의함

펠란에 따르면 믿을 수 없는 서술은 사실(facts), 가치 및 윤리(values and ethics), 지식과 인지(knowledge and perception)라는 세 가지 축(axes)을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분류로 크게 나뉨

첫째, 믿을 수 없는 화자는 서사적 사건에 대해 잘못된 보고(misreporting), 잘못된 해석(misinterpreting) 및 잘못된 평가(misevaluation)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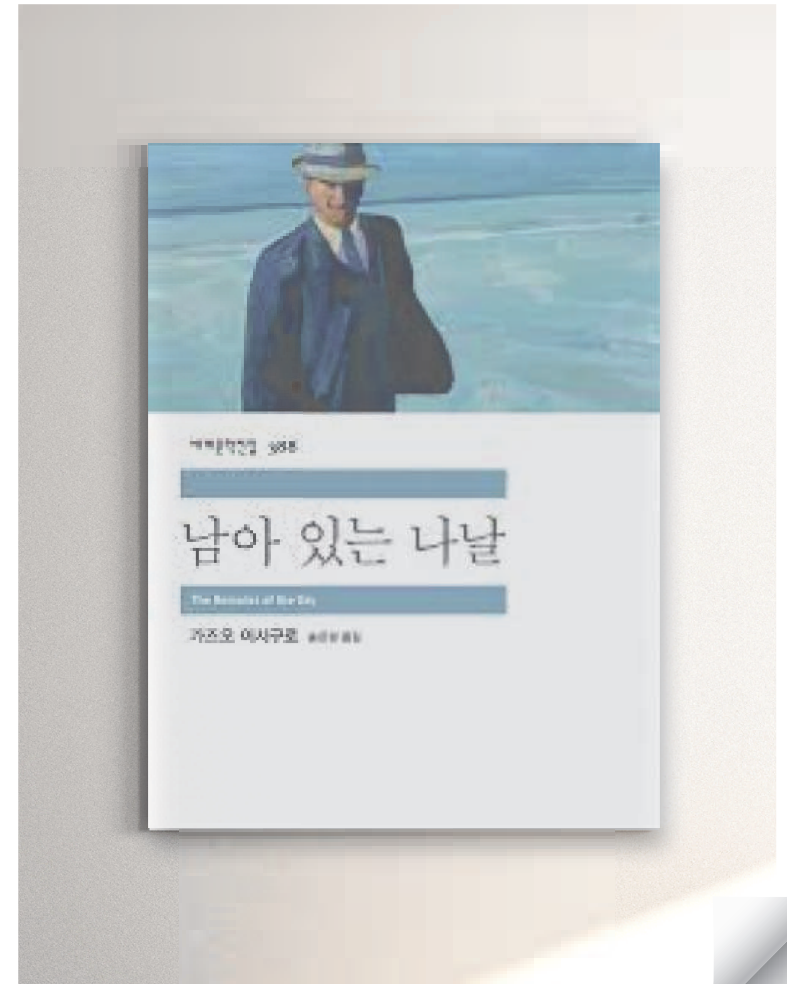
둘째, 믿을 수 없는 화자는 서사 안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축소보고(underreporting), 축소해석(underinterpreting), 축소평가(underevaluating)를 전달할 수 있음

〈남아있는 나날〉의 믿을 수 없는 화자

〈남아있는 나날〉의 화자 스티븐스는 크게 아래 세 가지의 서사적 사건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서술을 보인다.

- 아버지의 죽음
- 주인인 달링턴 경의 나치 동조
- 하녀장인 미스 켄튼에 대한 감정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 스티븐스는 대부분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를 보내지 마〉의 믿을 수 없는 화자

〈나를 보내지 마〉는 화자가 서술의 상당한 부분을 '암시'와 '암묵적 합의'로 서술을 이끌어 간다. 캐시는 애매모호한 암시를 명백히 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데, 그 이유는 복제인간이라는 정체성과 그 한계에 대한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소설의 독자는 '간병인', '기증', '완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꽤 많은 페이지를 소비해야 한다. 캐시는 '축소보고'를 하는 믿을 수 없는 화자인 셈이다.



영화의 믿을 수 없는 서술

제니가 집에 들어가는 걸 정말 싫어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나요? 제니는 앨라배마 태초부터 있었던 것 같은 낡은 집에 살았어요. 엄마는 제니가 다섯 살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농사일을 하는 듯했어요. 제니의 아빠는 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니와 여동생들에게 언제나 키스를 하고, 아무튼 손을 떼지 않았으니까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내레이션 중 -

영화학에서 믿을 수 없는 서술은 소설의 믿을 수 없는 서술과는 다른 개념으로 활용된다. 영화학에서 믿을 수 없는 서술이라는 개념을 차용한 연구는 관객이 등장인물 또는 사건에 대해 잘못된 추론을 하도록 유도한 뒤 영화의 후반부에 진실을 밝히는 구조, 즉 구조적 반전(plot twist)을 믿을 수 없는 서술의 핵심으로 봄

각색 변이

Adaptation shift (Perdikaki 2017)

Descriptive Categories	Plot Structure	Narrative Techniques		Characterisation	Setting	
Shift Types		Temporal sequence	Presentation		Temporal	Spatial
Modulation	Amplif. Simplif.	Duration	Narration→ Narration	Amplification Simplification	Amplification Simplification	
Modification	Alteration	Order	Narration→ Monstration	Dramatization Objectification Sensualisation	Alteration	
Mutation	Addition Excision	Addition Excision		Addition Excision	Addition Excision	

내러티브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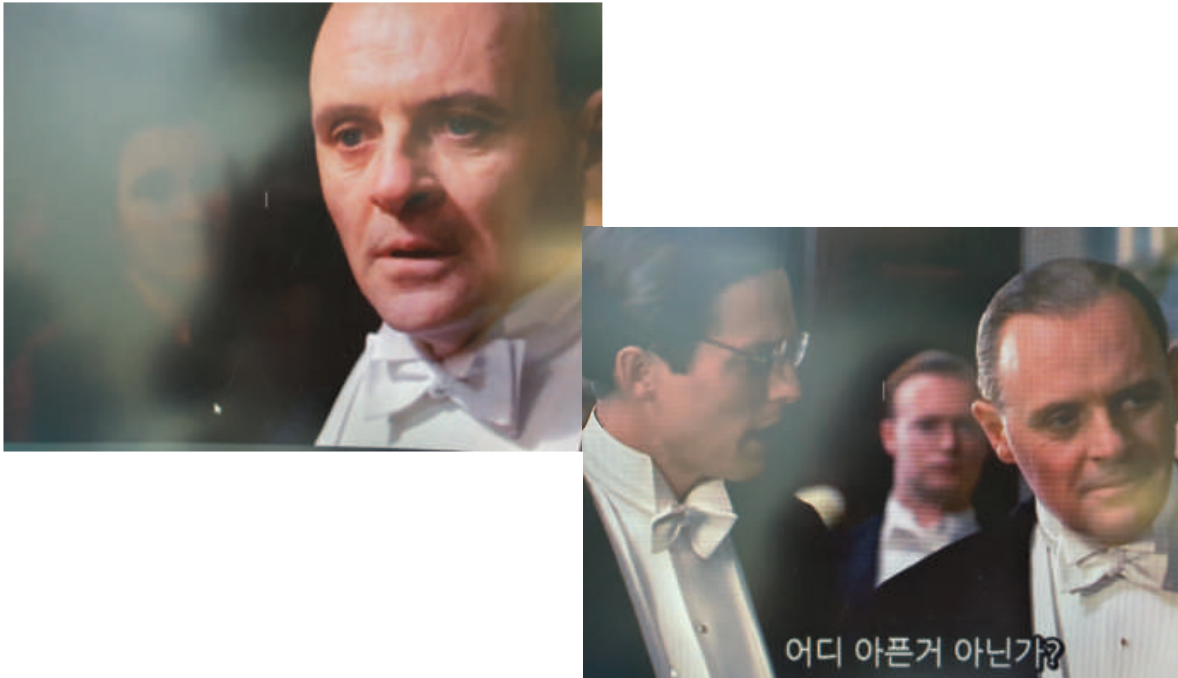
- cinematography
- 영화의 편집
- 미장센

캐릭터 구축

- 조절
- 변경
- 변형

〈그날의 잔영〉의 영화 각색에서 재현된

소설의 믿을 수 없는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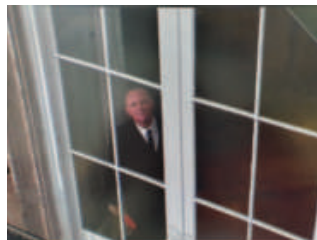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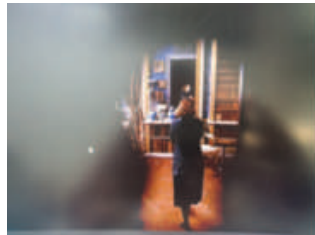
소설의 잘못된 보고



말을 아끼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등장인물의 성격으로 묘사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드러남

〈그날의 잔영〉의 영화 각색에서 재현된

소설의 믿을 수 없는 서술



스티븐슨의 시선
(1인칭 시점에서의 시선)



카메라의 중립적인 시선

〈나를 보내지 마〉의 영화 각색에서 재현된

소설의 믿을 수 없는 서술



복제 인간도 사람인가라는 소설의 질문에 대해 영화는 시각과 청각의 매체를 동원해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

소설에서 캐시의 축소보고는 영화 각색에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손목에 찬 밴드 등으로 외현화된다.

각색 변이의 기술에 대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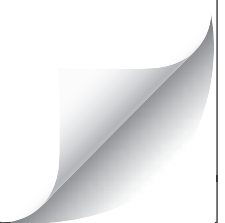
〈남아있는 나날〉에서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재현

- 아버지의 죽음이나 켄튼에 대한 사랑은 연기하는 배우의 표정을 통해 숨길 수 없게 된다. 스티븐스의 잘못된 보고는 그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반박되며 스티븐스의 캐릭터는 더욱 비극적으로 그려진다.
- 영화는 누군가가 들여다보는 듯한 시점에서 시작하며 켄튼은 종종 문의 열쇠 구멍을 통해 훑쳐보는 스티븐스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소설의 믿을 수 없는 화자가 여행을 통해 자신이 부인해 왔던 진실을 마주하며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는 여정을 영화 각색에서는 controlling eye에서 좀 더 중립적인 카메라의 시선으로 표현한다.

〈나를 보내지 마〉에서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재현

- 소설에서는 '기증', '간병사', '완결'이라는 단어의 미스테리가 서서히 풀리지만 영화에서는 캐시의 초반 부 내레이션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복제인간과 인간의 경계는 영화에서 흐릿해지며 믿을 수 없는 서술의 효과로 전달되는 소설의 아이러니는 영화 각색에서 삭제된다.

참고문헌

- Booth, W. C., & Booth, W. C. (1983). The rhetoric of fi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ttrysse, P. (1992). Film (Adaptation) as Translation: Some Methodological Proposa. Target.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4(1), 53–70.
- Palmer, R. B. (2004). The sociological turn of adaptation studies: The example of film noir. A companion to literature and film, 258–277.
- Perdikaki, K. (2017). Film adaptation as an act of communication: Adopting a translation-oriented approach to the analysis of adaptation shifts. Meta: journal des traducteurs/Meta: Translators' Journal, 62(1), 3–18.
- Phelan, J. (2005). Living to tell about it: A rhetoric and ethics of character narr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 Valdeón, R. A. (2014). From adaptation to appropriation: Framing the world through news translation. Linguaculture, 5(1).
- Zatlin, P. (2005). Theatrical translation and film adaptation: a practitioner's view (Vol. 29). Multilingual Matters.
- 

감사합니다.

